

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2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30 채널A 아침뉴스	50 인강극장		1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잘났어 정말>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웰컴 투 돈월드 베스트(재)	25 아침미담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4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화> 40 여유만민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50 시사특급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빨간자전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50 뉴스와이드	00 러브 인 아시아(재) 55 바른말 고문말(재)	10 KBS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인강극장 스페셜(재)	00 MBC여성토크쇼 40 SBS12뉴스 20 TV속의 TV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30 KBC 열린토론회(재)
12 00 웰컴 투 시월드(재)	00 KBS걸작선 <학교2013>(재)	35 생생 정보토크쇼	20 MBC 네트웍 특선 <비디야 놀자>	30 피우자 민들레
1 10 텃밭평평(재)	00 KBS 뉴스 10 2013 협회장배 전국 승마대회	10 다큐멘터리 3일 베스트(재)	10 문화콘서트 난장 스페셜	00 SBS 뉴스 10 네트웍 현장 고향이 보인다
2 20 직언직설	50 KBS 파노라마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오감민족세상은 맛있다(재) 35 후토스 미니미니(재)	00 MBC 경제 뉴스 10 외우신나는 세계여행 베스트	10 우리아이기가 달라졌어요(재)
3 30 쾌도난마	00 KBS 오늘의 경제 10 특집 2013 삼성 세계 전통음악 엑스포	00 KBS 뉴스타임 30 TV유치원	00 7쪽! 키즈스쿨 30 TV유치원	00 안녕 자두야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4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토크 1~2부	20 MBC 가요베스트	05 세상발견 유레카
5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 드라마 <무비반지>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타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웃남이 주의보>
6 30 그때 그 사람 스페셜	25 일일연속극 <지성이면 감천>	30 생생 정보토크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특별기획 <구암 허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7 4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칼투의 배란다소	
8 00 가요무대 55 배스볼 매거진 <아호>	00 월화드라마 <굿 닥터>	00 월화드라마 <꽃의 여신 정아>	00 월화특별기획 드라마 <불의 여신 정아>	00 월화드라마 <수상한 가정부>
9 00 추시타파(재)	30 KBS 뉴스타임	2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0 공감다큐 <그 곳>	20 힐링캠프 <7번지 아니한가>
10 10 이영돈PD 막걸리 X파일(재) ①:20 모쿠드라마 <싸인>(재)	00 KBS 글로벌 24 40 소모조 하이리이트 ①:00 KBS 뉴스 10 네트웍 문화특선 이현철의 올댓뮤직(재)	40 해외 특별기획 드라마 <초한지>	20 MBC 뉴스24 40 소모조 다이아리 55 마을이야기 올댓출판 스페셜 ①:55 바비킴·이루마의 TV 예술무대	50 나이트라인 ①:10 SBS골프

충무로 강타한 사극 열풍 '관상' 이을 대작 몰려온다

‘역린’ ‘군도’ ‘협녀’ 등... 내년 줄줄이 개봉 앞뒀

영화 ‘관상’이 21일 개봉 12일 만에 7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투자배급사는 조심스럽게 1천만 관객을 기대하고 있다.
 바야흐로 충무로의 사극 시대. 사극 영화의 잇따른 흥행 돌풍에 힘입어 충무로에 사극 영화 제작이 붐을 이루고 있다. ‘광해’와 ‘관상’을 이을 기대작들이 즐비하다.
 배우의 지명도나 이야기의 스케일 등을 고려할 때 가장 기대작으로 꼽히는 영화는 현빈 주연의 ‘역린’과 하정우 주연의 ‘군도: 민란의 시대’, 이병헌 주연의 ‘협녀: 칼의 기억’이다.
 ‘역린’은 조선 시대 정조의 암살을 둘러싸고 죽이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 살아야만 하는 자의 엇갈린 운명을 그린 영화로, 현빈이 정조 역을 맡았다.
 현재 ‘관상’으로 더욱 주가를 올리고 있는 조정석이 살인을 위해 길러진 청부 살수 역을 맡아 현빈과 대립각을 세우고, 정재영이 왕의 서가를 관리하는 상책 역을 맡아 극의 중심을 잡는다. 지난 10일 촬영을 시작했으며, 내년 상반기 개봉 예정이다.
 ‘군도: 민란의 시대’는 윤종빈 감독이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에 이어 굵직한 남자 배우들로 만드는 ‘상남자’ 액션 영화다. 충무로 대세인 하정우에 더해 군대 전역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강동원의 복귀작이어서 여성 팬들의 관심이 크다.
 영화는 양반과 탐관오리의 착취가 극에

달했던 조선 철종 10년 백성의 편에 서고자 했던 도적들의 활약상을 그린다.
 조진웅, 이성민, 이경영, 마동석, 정만식, 김성균 등 걸출한 조연배우들이 함께 한다. 현재 촬영 중이며 다음 달 중순 마무리하고 내년 7월 개봉한다.
 ‘협녀: 칼의 기억’은 리안 감독의 ‘와호장룡’처럼 아름다운 무협 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려 말 무신시대를 배경으로 민란을 주도한 세 명의 검객 설랑(전도연 분)·덕기(이병헌)·풍천이 대의를 이루지만, 덕기의 배신으로 결의가 깨지고 설랑은 복수를 위해 ‘협녀’를 찾는다.
 ‘협녀: 칼의 기억’은 윤종빈 감독이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에 이어 굵직한 남자 배우들로 만드는 ‘상남자’ 액션 영화다. 충무로 대세인 하정우에 더해 군대 전역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강동원의 복귀작이어서 여성 팬들의 관심이 크다.
 영화는 양반과 탐관오리의 착취가 극에

다한 촬영을 끝내고 올해 개봉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밀리면서 내년 봄 개봉하게 됐다.
 사극은 원래 세트 제작과 의상·소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 충무로에서 쉽게 업무를 못내는 장르였다. 하지만, 2005년 말 개봉한 ‘왕의 남자’가 1천230만 관객 동원이라는 대박을 터뜨린 뒤 사극은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이후 몇 년간 한국영화 산업 전반의 침체와 함께 사극 역시 한동안 뜸했었지만, 2011년 여름 ‘최종병기 활’이 750만 관객을 모으며 다시 사극의 인기에 불을 지폈다.
 이어 지난해 ‘후궁: 제왕의 첩’,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광해, 왕이 된 남자’까지 사극 세 편이 모두 흥행하며 큰 수익을 냈다.
 이같은 열기가 올해 가을로 넘어와 ‘관상’ 흥행의 밑거름이 됐다.
 사극은 새로운 것을 원하는 관객들의 입맛에도 잘 맞는다. 현대극에서 소재가 고갈되면서 시공간의 무궁한 창조와 재해석이 가능한 사극이 새로운 스타일과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장르로 각광받고 있다.
 <연말뉴스>



“가을엔 멜로~” KBS ‘드라마 스페셜 단막 2013’

‘비의 나라’ ‘당신의 누아르’ ‘그렇고 그런 사이’ 매주 수요일 방영

가을 느낌을 물씬 담은 3색 멜로 드라마가 안방극장을 찾아온다.
 21일 KBS에 따르면 단막 프로그램인 ‘드라마 스페셜 단막 2013’이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멜로 드라마 3편을 선보인다.
 25일 여교사와 남학생의 멜로 드라마를 그린 ‘비의 나라’(극본 이아람, 연출 안준용), 10월 2일 조폭 막내의 위험한 사랑을 그린 ‘당신의 누아르’(극본 김옥, 연출 이소연), 10월 9일 죽은 남편의 ‘오피스 와이프’와 함께 살아가는 모녀 이야기 ‘그렇고 그런 사이’(극본 홍정희, 연출 함상우)가 이어진다.
 ‘비의 나라’<사진>에서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에서 주연으로 주목받은 배우 정은채와 최근 SBS 드라마 ‘주군의 태양’에서 여성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끈 배우 유민규가 각각 남녀 주인공을 맡아 멜로 드라마를 펼친다. 같은 날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선생님 나라(정은채 분)와 아버지를 잃은 남학생 우기(유민규 분)가 서로 상처를 감싸주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당신의 누아르’는 황찬성(2PM 찬성)이 주연을 맡아 눈길을 끈다. 조폭의 막내 형주(황찬성 분)가 자신의 조직을 검거하려 온 검사(홍정인 분)를 미행하다가 그의 아내이자 고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선생님이었던 정안(분)을 만나며 위험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다.
 ‘그렇고 그런 사이’는 배우 예지원이 7년 만에 KBS 드라마에 출연하는 작품이다. 예 지원은 남편의 1주기 추도식에 찾아온 남편의 회사 여자 후배와 한집에 살게 되면서 그녀와 남편 사이를 의심하게 되는 은하 역을 맡았다. 두 여자가 한집에서 살아가며 사별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내용이다.



EBS

06:10 서양 음악 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복권의 집밥이 진리다> -불고기 및 우조림과 꿀맛 제육볶음	15:00 열려라 아비디스 15:15 꼬마기사 마미코 15:30 꼬마거북 크랭클린 15:45 외갈와를 친구로 16:00 당동명 유치원(재)	18:30 생방송 특목 보너하니 19:30 피델리움 19:50 모피와 친구들 20:00 EBS뉴스 20:20 요리비전 20:50 세계테마기행 <타카> 21:30 한국기행 <담양·산에 들에, 산아기 주는 선물>
07:00 미술탐험대 07:15 정글북 07:30 부릉부릉 부르미즈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당동명 유치원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08:35 방과후장 뽀롱이 08:50 숲 속 친구 피파틀라 09:10 시계마을 티키펍 09:20 부모 10:00 한국기행 10:20 요리비전 <고단함을 달래다 강원도 메밀밭상>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 13:05 지식채널e 클래식 13:10 줄거은 수학 EBSMATH 13:20 배움나미 13:30 풀꽃 페피는 줄거위 13:45 비두와 친구들 14:00 지난 레리우스 박사님 14:15 토크쇼 이야기 14:30 꾸러기 상상여행	16:30 부릉부릉 부르미즈 16:45 숲 속 친구 피파틀라(재) 17:00 방과후장 뽀롱이(재) 17:15 시계마을 티키펍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놀이터 구조대 뽀잉 18:00 미연 마이 로봇 18:15 정글북	21:50 EBS 다큐프라임 <빛의 물리학> 22:45 달라졌어요 23:35 지식채널e 클래식(재) 23:40 생방송 EBS교육 대토론 24:05 다문화 <사랑>

EBS플러스1

00:00 기본과 특별한 <일반사회> 00:50 내신 6강 <수학> 01:40 " <수학> 02:30 포스 <독서와 문법> 03:20 " <독서와 문법> 04:10 " <수학 1 A형> 05:00 " <수학 1 B형> 05:50 " <마적분과 통계기본>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특해의 기본(1)> 07:30 " <Basic Grammar> 08:20 틱스런 <법과 정치> 09:10 " <동아시아사> 10:00 " <경제> 10:50 " <생활과 윤리(1)(2)>	12:30 최태성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불교문화 <수학> 13:00 틱스런 <생활과 윤리(3)> 14:00 인터넷 수능 15:50 지식채널e 클래식 <독서와 문법> 16:00 인터넷 수능 <독해(B)> 17:00 " <독해(B)> 18:00 708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국어(A형)> <영어(A형)> <영어(B형)> <수학(A형)> <법과 정치>
---	---

EBS플러스2

07:00 공인 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수학> 07:3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눈 <지리> 08:00 안-정식 시험 대비 강좌 <독서·문법·회법·직문(A)(B)> 09:00 줄거은 수학 EBSMATH <국어(1)> 09:10 TV 중학 1학년 <수학(1) (상)> 10:30 " <수학(1) (하)> 11:10 " <역사(1)> 11:50 중학 2학년 <영어> 12:30 " <문학> 13:10 중학 @포스 영문본 ① 13:50 중학 @포스 영문본 ② 14:30 중학 @포스 영문본 ③ 15:10 EBS 중학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특강	15:40 " <국어 3-2> 16:10 " <국어 4-2> 16:40 " <국어 5-2> 17:10 통통가족 <국어 6-2> 17:20 중학개념 풀집내기 <국어> 18:00 " <사회> 18:40 월드컵 파이낸스(1)(2) 20:20 EBS 문화사 시리즈 <제1편 명동 백작> 21:20 등원스공 <수학(1) (하)> 22:00 중3 퍼펙트 체크업 <수학 3-2> 22:40 중학 3학년 <영어 3-2> 23:20 " <문학3>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3일(음 8월 19일 壬辰)

<p>子 36년생 모든 일에 우선해야 하느니라. 48년생 경험에 비추어 불 필요가 있다. 60년생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72년생 일상에 파묻혀서는 아니 되었다. 84년생 소박한 경제적 이익과 명예로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 89, 93</p>	<p>午 42년생 원리를 잘 응용할 줄 아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54년생 공허한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자. 66년생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78년생 현실과 이상을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7, 69</p>
<p>丑 37년생 기교가 가치를 좌우할 것이다. 49년생 면밀하게 살펴 보았을 때 손실을 줄일 수 있다. 61년생 집착한다면 불합리한 감과 과하게 되리라. 73년생 전체를 두루 살펴보자. 85년생 상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06, 90</p>	<p>未 43년생 행운이 따르는 길잡이 보인다. 55년생 사립귀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67년생 역량 부족으로 인해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되리라. 79년생 가깝더라도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43, 02</p>
<p>寅 38년생 가까운 이로 인한 기쁨이 있다. 50년생 상대를 맹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곤란한 일이다. 62년생 발상과 의식의 전환이 시급한 때이니라. 74년생 당면한 상황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64, 31</p>	<p>申 44년생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56년생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빚어지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68년생 의심스러운 점은 문외해 봐야 한다. 80년생 영향력 있는 이와 의 만남을 갖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49, 60</p>
<p>卯 39년생 사소함에서 벗어났을 때 큰 것을 얻게 되는 법이다. 51년생 상대와 만회할 수 있는 호기가 도래하고 있느니라. 63년생 고집감래하는 모습이다. 75년생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6, 12</p>	<p>酉 45년생 경계망동 한다면 다 된 밥에 재 뿌린 격이 될 것이다. 57년생 초기에 승세를 잡지 않으면 갈수록 힘들어진다. 69년생 정방위적인 조치가 절실하다. 81년생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장교를 거듭하리라. 행운의 숫자 : 16, 50</p>
<p>辰 40년생 연쇄적인 현상이로다. 52년생 상대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느니라. 64년생 나올 것은 한정 되어 있는데 들어 갈 곳은 넘쳐나겠다. 76년생 솔직히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백 번 나은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42</p>	<p>戌 46년생 흥동하기 쉬운 날이니 만전을 기하자. 58년생 목적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가 보인다. 70년생 의외로 심하게 끝나 버릴 수도 있다. 82년생 평시에 우산을 준비해 뒀어 우기에 대비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4, 09</p>
<p>巳 41년생 주변 환경이나 조정에 순응하는 편이 낫다. 53년생 중요한 일이 겹쳐서 분주해지겠다. 65년생 원래 자신과 인연이 없는 것이었느니라. 77년생 능부자 경작하는 심정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32, 56</p>	<p>亥 47년생 절실한 시기에 귀인의 도움이 따르는 모습이다. 59년생 측시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겠다. 71년생 일이 순조롭게 내실 있게 진행될 것이다. 83년생 새로운 일이 싹타리가 되어 줄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5, 75</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TV 하이라이트

<h3>장애인 가족과 떠나는 감동 여행</h3> <p>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오후 5시35분) = 대전시 유성구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 1급의 최병관(46)씨는 손을 제외하고는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다. 그런 남편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는 베트남 아내 최희경(30)씨는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까지 돌보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8년의 결혼생활 동안 가족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40여명의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한 기업체의 후원으로 진행된 2박 3일의 전남 여행. 온갖 꽃과 화초가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절경을 이루고 있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을 비롯해 전남 땅 끝 해남 일대의 순천만 갈대 습지까지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된다.</p>	<h3>한국사 교과서 논쟁의 끝은?</h3> <p>EBS교육대토론(EBS·밤 11시40분) = 지난 8월 30일,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의 최종 검정심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 중 교과사 교과서가 지나치게 우편향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진보진영의 검정 취소 요구가 빚발치고 있다. 식민지배와 독재를 미화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는 보수 진영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검정을 최종 통과했다는 것은 역사 교과서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을 뿐더러, 오히려 기존의 한국사 교과서들이 지나치게 좌편향돼 있었다는 것이다. 각계각층 전문가와 함께 되풀이되는 한국사 교과서 논쟁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해 본다.</p>	<h3>시은, 처음으로 춘성에게 맞서다</h3> <p>국뎨터(KBS2·밤 10시) = 시은과 윤서는 점점 타닥타닥 가고, 인내는 그런 시은을 위로해주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춘성의 만행을 보다 못한 윤서는 자신이 친엄마임을 시은에게 밝히고 만다. 한편 퇴원을 앞둔 동진이 갑자기 쓰러지고, 시은은 이 때문에 자책하는 윤서가 걱정스럽기만 했다. 이번 회에서는 시은은 처음으로 춘성에게 맞서 맞서 맞서는 용기를 내고, 병원 사람들 그런 시은의 달라진 모습에 조금씩 동화되어간다. 최화정의 비밀을 알게 된 채경은 모든 계획을 포기하지만, 해임당한 부원장이 채권 단 대표자적으로 병원에 돌아온다. 한편 문지자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가카스로 생존한 피해자 어린이가 입원하게 되는데...</p>
---	---	---